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5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4. 전능왕 오셔서 .....	다함께
----------------	-------------------	-----

♠ 공동기도 .....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빈손이 부끄럽습니다. 알찬 열매 거두어 주님께 바치고 싶었는데, 일상에서 허덕이다가 그만 삶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맞을수록 꼳꼳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팽이처럼 우리도 하나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를 기다리고, 장마가 지루하게 이어지면 맑은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한든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끈질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당신의 종들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롬8:33-34 .....	인도자
----------------	----------------	-----

♠ 교 독 문 .....	41. 이사야65장 .....	다함께
---------------	------------------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	-----

대표기도 .....	I. 광권희 집사	II. 한상의 장로
------------	-----------	------------

응 답 송 .....	찬양대
-------------	-----

찬 송 .....	252. 기쁜 소리 들리니 .....	다함께
-----------	----------------------	-----

성경봉독 .....	I. 마4:12-17 .....	인도자
------------	-------------------	-----

II. 갈3:23-29 .....	김훈동 권사
--------------------	--------

찬 양 .....	찬양대
-----------	-----

말 씬 .....	I. 바로 보고 떠나라 .....	김재흥 목사
-----------	--------------------	--------

II. 차별 없는 세상 .....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 272. 인류는 하나 되게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세우고, 웃음을 잃은 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돌려주는 사랑의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힘들다 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느티나무처럼, 지친 이웃들이 언제든 다가와 쉴 수 있는 품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선교회별 월례회	7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 : 장성호 선생	인도 : 김재흥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권미정 집사

<b>7월</b>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최철수	배상순	박애순	권미숙
	헌금위원	한상익	김용진	이인웅	구명자	안정숙	백혜숙

## 충만한 삶을 살아가

서구 기독교 사회와 그 역사의 윤리적 원형은 나사렛 예수다. 우리는 그에게서 과연 어떤 생태적 세계 윤리를 배울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아노라 자부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꼭 필요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윤리 밖에 또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세계 종교, 전 세계적인 기후 보호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의 도덕도 지구적 차원의 도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무無에서 생겨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자연과학의 기본 상식이다. 우리는 에너지 순환과 물질의 유동성 속에서는 그 무엇도 무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흙과 물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영靈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는가? 또 그것은 어디서 왔나? 여기서 학문은 아는 게 없다. 그러나 예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배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그 근원적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와 그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능지수IQ 못지않게 사랑지수LQ를 개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다. 우리는 이 비밀의 뒤를 추적하지만 끝내 풀 수 없는 비밀로 남는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과학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150억 년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으며 이렇게 놀라고 있다. 이 놀라운 발전이 그저 우연일까? 순수하게 역학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것인가? 예수와 같은 삶의 예술가, 삶의 스승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기원과 지향, 존재 이유에 대한 암시를 준다.

생태적 예수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생태적 삶의 예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생태적 삶의 예술은 예수가 ‘생명의 풍성

함’ 또는 ‘풍성한 삶’(요한복음 10:10)이라고 말한 것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의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는 자신을 목자牧者로 비유한다. 그 목자는 자신을 신뢰하는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의 분명한 자의식이 배어 있는 생태적 이미지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요한복음 10:9-11)

‘풍성한 삶’을 살고 즐긴다 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와 복을 발견하고, 육체와 영혼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며, 나아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연 앞에서 사랑스러운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가 ‘풍성한 삶’이라고 명명한 것을 삶의 예술, 혹은 생명 사랑,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 전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삶을 사랑하고 사랑을 살라!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다.”

더 간단히 하면,

“사랑은 건강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행복한 삶의 비밀이다. 온전한 삶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서 육체적 에너지와 영혼의 에너지가 화음을 이루고 그 화음이 삶의 활력과 용기로서 생동감 넘치는 삶의 결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때 경험할 수 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스 밀러는 우울함의 반대는 기쁨이 아니라 생생함이라고 말한다. 융의 제자인 페터 쉐렌바움은 정신 에너지가 그 생생함의 열쇠라 주장한다. 신학자들은 죽음 이전에 생명도 있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생태위기는 이 생생함의 결핍이 겉으로 나타난 것 아닐까? 삶의 활력 결여의 표현 아닐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 우리의 안팎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의 표출이 아닐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덜 파괴한다.

--프란츠 알트, <<생태주의자 예수>> 중에서

## 누가 이것들을 지으셨는가?

다음은 라삐 브라츨라브의 나흐만(Rabbi Nahman of Bratslav)이 들려준 비유 한 토막이다.

부왕(父王)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한번은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너무나도 기뻐다. 그는 편지를 소중하게 간수했다. 그러나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만큼 더욱더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탄했다. “아, 아, 아버지의 손을 만질 수만 있다 해도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내가 그 손을 꼬옥 껴안으련만. 내 아버지요 스승이며 빛이신 그분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을 입술에 담아 그 손가락마다에 입을 맞추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손가락을 만질 수만 있다 해도 얼마나 좋을까!”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만져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한탄하고 있는 동안, 머리를 번갯불처럼 스쳐 가는 생각이 있었다. 나에게서는 아버지의 편지가, 당신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지 않은가? 부왕의 친필이라면 그분의 손과 맞먹는 것 아닌가? 그러자 그의 가슴에서 큰 기쁨이 솟구쳤다.

당신의 작품,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시8:3)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사람을 찾는 하느님>> 중에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한완식 임정자 자화영 문광성 박이훈 경희민 김중수 수선동 이순규 정석속 김지영 윤선영  
 김용진 김박효우 오선재 김오진 김정자 김영숙 임최임 최종원 방고정 조성송 레무 박이방 송양 김맹임 권중은 승미 수선동 이박백 순규혜 박석속 김박장 지영재 윤선영  
 김재영 조문규

### 월정헌금:

권순우 윤정화 권혁순 박혜경 문복순 박범희 박미영 박찬정 서정순  
 조항범 오현정 최윤희 황원순 황자순

### 감사헌금:

김기석 김준우 우순덕 장영숙 윤정현 덕조성 실범수 박병구 홍순구 안홍숙  
 왕성한 김강순 배김송 임희회 최영숙 김오영 김현정 김조성 김희준 이한이 구혜정 권미희 구숙희 안박희  
 허경기 김태경 송임회 최숙화 김정길 김희정 김희준 이한이 구혜정 권미희 구숙희 안박희  
 무명2

생일감사헌금: 유증희 가족

캄보디아 우물헌금: 최윤희 김용원 윤석철 박병구 정경례 박현진

###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이선림 (누계 : 75,845,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김정섭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박홍엽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희우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임수연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정진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수양회 준비** : 전교인 수양회 준비를 위한 각 선교회장과 동호회장 모임이 월례회 후 3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 **냉난방헌금** : 오늘 예배 중에 냉난방헌금을 봉헌합니다.
4. **기도의 밤** : 7월 4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7월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5. **봉사** : 주님의 손발이 되어 일할 분들을 찾습니다.  
종묘 앞 급식 봉사 - 4일(수) 오전 11시 15분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 6일(금) 오후 12시 30분
6. **대청소** : 7일(토)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교회 공사가 마무리되어 집기들을 정리하고 그간 쌓인 먼지들을 씻어내려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꽃샘생명걷기대회** : 1907년 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CBS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주관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7월 7일 오후 4시부터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를 걷는 행사입니다.
8. **신앙실천** : 녹색 살림 살기 수칙을 자주 들여다보며 에너지와 물자 절약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토요주방봉사(7일) : 문인옥 광권회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송남철 신동례 (생일)

\* 집기 헌물 : 김철수 박창운 임보람 무명1

### <새교우 소개>

2726 정한구 소속 : 1남선교회

2727 왕영순 소속 : 3여선교회

2728 이송희 소속 : 10여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